

목공예, 뜨개질, 수제 맥주, 오디오 앰프, 생활자기... 내 손으로 필요한 물건을 똑똑하게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Handmade·手製) 열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대량생산 체제, '디지털 시대'를 사는 슬기로운 취미생활이면서 자신을 찾는 일이기도 하다. 최근의 '핸드메이드' 트렌드를 비롯해 봉선동 핸드메이드 거리 공방, 핸드메이드 축제를 살펴본다.

# HANDMADE

지금은 핸드메이드 전성시대

##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기쁨...수제의 세계에 빠지다

◇ 세상에서 하나 뿐인 나만의 물건, '핸드메이드'="단순히 앰프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소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디오 마니아인 김만태(47)씨는 자신이 추구하는 '소리'를 완벽하게 들려줄 수 있는 '진공관 앰프'와 스피커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진공관을 사용해 '오래 들어도, 하루 종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소리, 오디오 마니아들의 '황금 귀'를 충족시킬 완벽한 앰프를 구현하기 위해 20년 가깝게 분투하고 있다. 그의 작업공간은 수많은 오디오 관련 부품들로 받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역을 살리면서 저역을 얼마나 깊이감 있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자작중인 '진공관 앰프'가 마무리 단계이다. 연말이나 내년초에 창업을 한 후 '오디오 쇼', '오디오 박람회'에 제품을 소개하고 오디오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요즘 내 손으로 뭔가를 직접 만드는 '핸드메이드'(Handmade·手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에도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수록 MZ세대를 중심으로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집콕'하는 시간이 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됐다. '핸드메이드'는 '레디메이드'(Ready-made·既成品)와 상대적 개념이다. 사람의 두 손으로, '나만의 개성'을 담아, 오랜 시간에 걸쳐 직접 만드는 '수제'는 공장에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대량생산돼 쏟아져 나오는 '기성품'과 차별화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손을 쓴다는 점이다. 뭔가를 만드는 일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 파베르'(Homo Faber·工作人), '도구의 인간'으로도 불린다. 주강현 제주대 석좌교수는 지난 2002년 펴낸 '원손과 오른손-죄수 상징, 억압과 금기의 문화사'(시공사)에서 "인간이 손을 손이라고 느꼈을 때, 손에 관한 지각 능력의 출발은 인류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면서 "손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동물과도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고 강조한다.

◇MZ 세대가 수요창출하는 '핸드메이드 플랫폼'="그냥 사서 사용하면 되지 않나?" "굳이 손수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수공예품 만들기에 폭 빠진 이들이 흔히 듣는 질문이다.

"장성의 특산물을 활용해 '편백 맥주', '비자 맥주'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농부가 직접 만든 수제맥주로 새로운 농업·농촌 시장을 개척해 보고 싶습니다."

오덕수(49) 장성 별내리마을 사무장은 지난해 꼬박 1년 동안 강원도를 오가며 '수제 맥주 만들기' 학습에 몰입했다.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 자리한 농촌체험 휴양마을인 '별내리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관광 콘텐츠로 '농가 수제맥주'에 주목했다.

호프(Hop)와 맥아(麥芽·Malt)를 주재료로 에일과 인디아 페일에일, 흑맥주(브라운 포터·스타우트) 등 다양한 맥주를 빚으면서 희열을 맛보았다. 오 사무장은

수제맥주의 매력으로 '라거(Lager)로 분류되는 기존 상업용 맥주와는 풍미가 다르고, 깊고 진한 그 맛을 내 손으로 만들어 내는 희열이 있어서 즐거웠다"면서 "맥주의 모든 재료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많은 보급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농부가 재배한 농산물로, 농부가 직접 만든 수제맥주는 농업·농촌에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점 또한 큰 즐거움일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별내리마을에서 수제맥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나아가 장성의 특산물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맥주 레시피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상품화할 구상을 하고 있다.

'핸드메이드'의 매력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물건을, 직접 내손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자신의 잠재된 창의성을 깨워 한층 한층 손뜨개질을 하고, 원목을 다듬으며 딱딱딱 딱 망치질을 한다. 또 공산품과 다른 수제 맥주와 도자기, 오디오 앰프를 만들어 본다. '원성의 기쁨'과 함께 번잡한 머리를 비우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손맛'을 느끼는 취미생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취미가 직업이 되는 '덕업일치'를 이루기도 한다.

수공예 작업은 '업사이클링'(Upcycling·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과도 연결된다. 낡은 가방과 옷 등에 전용 물감을 활용해 캐릭터나 문양, 이니셜을 그려넣어 자기만의 개성적인 물건으로 탈바꿈시키는 '마르카주(Marquage·표시작업)'이라는 뜻의 프랑수아)도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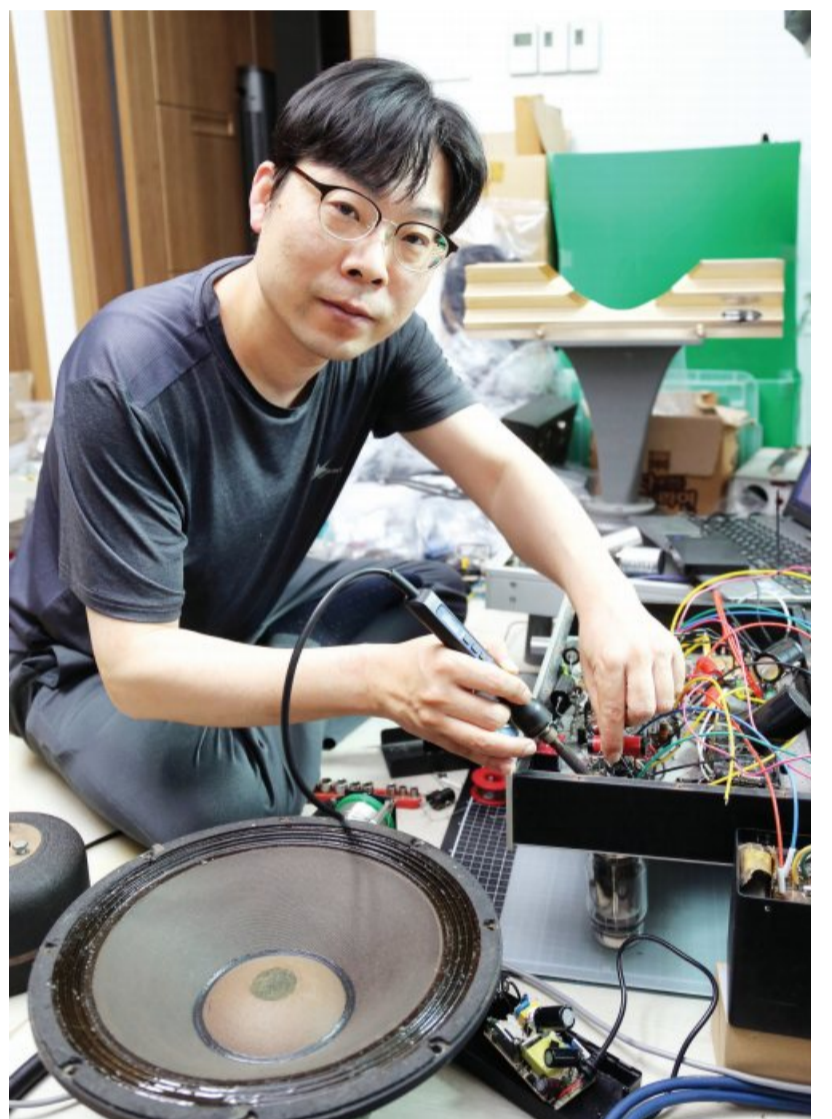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은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기성품과 차별화된 독특함과 희소성이 있어 개성을 표출할 수 있고, 소장 가치 또한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핸드메이드 제품을 살 수 있는 온라인 거래시장이 형성되며 수공예품 전문 플랫폼도 활성화됐다. 미국은 '에트시'(https://www.etsy.com), 한국은 '아이디어스'(https://www.idus.com)가 대표적이다. 지역에서도 '모람 플랫폼'(https://moram.kr)이 '광주 핸드메이드 플랫폼'을 표방하며 지난 2020년 12월 출범했다.

인간은 급속한 과학명명 발달에 따른 공장의 대량생산 방식과 상품에 익숙해져 정작 자신의 손으로 뭔가를 쥐고 다듬어 만드는 '생산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 필기마저 손글씨가 아닌 컴퓨터 자판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로봇·자동화가 심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아날로그 라이프'

와 '핸드메이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동안 상실했던 '도구의 인간', '호모 파베르' DNA의 귀환이라 할 수 있다.

'핸드메이드'는 만드는 이와의 삶과도 연결된다. 영화배우이자 모델인 이천희는 20살 이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품을 사지 않고 늘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고 한다. 딸이 태어나자 아빠의 마음을 담아 '아기 침대'와 '아기 의자'를 만들어 선물했다. 지난 2008년 공방을 열어 기존과 다른 자신의 아이디어를 디자인한 브랜드를 론칭한 '복수'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출간한 '가구 만드는 남자'(달)에서 가구만들기의 매력으로 '계속 만들면 뭔가가 완성된다는 것, 노력을 기울일수록 완성도가 올라간다는 것'



▲20여년 동안 오디오 앰프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김만태 씨.



◀수제 맥주로 '농가 브루어리'를 꾸꾸는 오덕수 장성 별내리마을 사무장. 직접 빚은 '벨지안 듀벨(Belgian Duvel)' 맥주와 '스티우트(Stout)' 맥주.

# MADE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